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양대불교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FAX: (031)470-3116

법공양 페이지

남 이익되게 실천할 수 있어야 道

인사 드릴 기회가 없어 인사가 늦었습니다. 서울법회 때 너무들 애를 쓰셔서 정말이지 감사한 마음 말로는 어떻게 형용할 수 없습니다. 회장님 이하 여러분 모두 다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런데 정신력이 이렇게 여기 몸을 끌고 오셨습니까? 하하하... 이 몸뚱이라는 것은 사실은 로봇과 같아서, 제가 격어 봐도 그래요. 서독에서 캐나다로 오니가 캐나다인지 서독인지 처음에 갔을 때는 멍멍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하, 이거 로봇트는 로봇트구나!' 하는 생각 말이에요. 또 서울에 와서 드러누웠다 일어나니 방문이 어딘지... 허허허... 그거 멍멍지더군요. 그래서요, 이 정신력이 없으면 사람은 그냥 송장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동차를 볼 때 인간이 부리는 로봇으로 생각하지 진짜 '나'라고 생각을 안하죠? 자동차 속의 운전수가 진짜 '나'지. 안 그렇습니까?

문을 열어 주고, 그렇게 해서 모두 한마음으로 이어져서 일꾼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더불어 같이 이렇게 하면서, 바깥으로 찾지 말고 안으로 꼭... 일거수일투족 당신이 하고, 뛰기도 당신이 된다고 항상 말해 왔습니다. 이 언덕 저 언덕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정신계와 물질계가 둘이 아니게 돌아가고 있다는 사실도 말입니다. 정신계와 물질계, 육신과 정신이 어디 따로따로 놓이니까? 그런데 여러분을 가르치기 위해서 방편으로 이 언덕에서 저 언덕을 빨리빨리 넘어서라고 합니다. 그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언덕은 물질계이고 저 언덕은 정신계인데, 만약에 정신계에 도달하게 되면 물질계와 정신계가 둘 아닌 도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저 언덕을 넘어서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과정에서 우리가 주인공을 그렇게 찾다 보면 거기에 모든 것이 통신이 됩니다. 그러나 물질계로만 들어

남극, 북극 모두가 여름이나 겨울이나 녹지 않는 얼음이 녹게 됩니다. 모두가 달라지고, 그렇게 그거 터지게 되면 어떻게 변화가 오느냐. 땅덩어리가 산산조각이 나게 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미처럼 어디 물 없는 데로 기어오를까요? 어떡할까요? 그것은 잠깐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종교를 믿고 절이나 하고 이려고 다니는 노라리로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더불어 같이 돌이 아닌 내 생명, 내 모습, 모두가 산산조각이 나는 겁니다. 그것을 이룰해서 천지개벽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그것은 왜 그렇게 돼야 되느냐? 전자에는 역사적으로 본다면 물에 죽고, 불에 죽고, 종교 싸움에 죽고 이렇게 해서 모두 역사가 이루어졌지만 지금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달렸다는 얘깁니다. 그것이.

이번에 독일에 가서 보니까 삼백 삼십 년 전에 종교 싸움에서 수없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을등 살등 모르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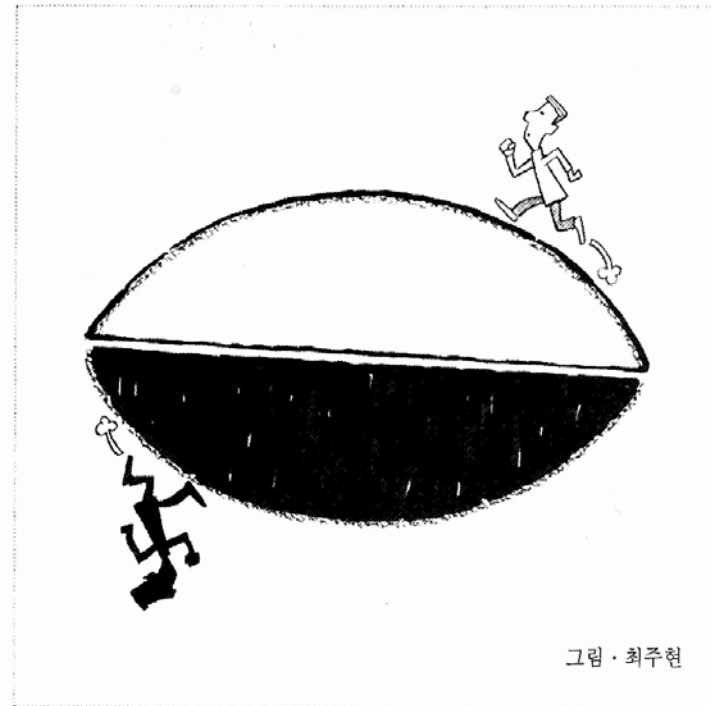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어왔어요. 나는 무식해서 역사도 뭐 잘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때에 따라서 알게 되면 딱 알고, 하게 되면 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 누구냐고 물으니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삼백 사오십 년 이전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는 겁니다. 그럼 수녀인 것은 아는데 왜 나한테 왔느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종교 싸움으로 인해서 독일 사람들이 삼분의 일, 말하자면 반이 죽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때 자기들은 수녀로서 성당을 하나 조그맣게 해 놓고 일꾼이 세 개가 있으면서 천막을 크게 세워서 죽어가는 사람 치료를 했다 합니다. 치료를 하다가 막판에 가서는 여러 못사람한테 봉변을 당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묻혔습니다." 이러는 겁니다. "그러나 한 발짝도 벗어날 수가 없고 지금 나쁜이 아니라 그 일꾼의 사람들이 전부 고문 당하면서 모두 갇혀 있고 갇혀 있으면서 한 발짝도 떼어 놓을 수가 없어서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나 이왕 오셨으니 다 이 문을 열어 주고 좀 해 주실 순 없습니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무슨 소리냐? 부처님 법이나 가톨릭 법이나 사람은 돌이 아니라, 모두가 돌이 아닐진대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고 푸욱 설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퍼덕 알아듣고 부처님 모셔 놓은 데 가서 절을 삼배를 올리고 그 수녀는 웃을 벗어서 담 너머로 다 쫓아냈습니다.

광대무변한 마음도리

그러면 그러한 경우가 왜 생기느냐 하는 것도 문제지마는 내가 그렇게 죽은 사람이나 산 사람이냐, 또 군인을 죽은 데 뭐, 어디? (대중 속에서 '공통요지, 군묘지'라고 말할 함) 응, 군묘지! 군묘지를 처음에 시험을 해서 실천을 해보고 또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판 군묘지를 또 택해서 해보고 이렇게 해서 모두 운집을 시킨 것은, 바로 내가 이러한 문제가 앞으로 이렇게 오리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오는 사람 하나하나 전지는 게 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사람도 몸 하나를 건져야 그 몸 속에 들은 중생들이 다 살 수 있는 것이지, 몸 하나 건지지 못하면 속에 들은 생령들은 다 죽습니다. 그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마음공부를 해야만 오고 가면서도 모든 생령들의 문을 열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죽은 생령들은 다 압니다. 누가 자기를 이익하게 할 수 있는지 그걸 알기 때문에 찾아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 그래서 말로 걸어서 찾아온다 하면은 그건 아니죠. 빛보다 더 빠르니까요. 그래서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귀중하고

▶ 16면으로 계속

한마음으로 지구 보존

그런데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저 스님은 지원을 어떻게 여러 군데다가 내고 돌아다니는지, 또 그저 말끝마다 왜 저렇게 주인공, 마음을 찾으라고 간곡히 저러는지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까닭은 산 사람이냐 죽은 사람이냐 다 함께 한 마음으로 지구를 보존해야 우리가 살 수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이 지원을 각계 각처에 송하는 데는 다 이렇게 내는 것은 그 지역에서 역사적 사건으로 죽은 모든 사람들, 모든 갇혀 있는 영혼들에게 문을 열어서 한마음으로 귀정하게 하고, 또 산 사람도 역시 그렇게 하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지역에 지원을 내기만 해도, 신도들이 없다 하더라도 벌써 그것은 우주하고도 직결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고 싶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항상 진실한 실천이 도(道)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은 맹세고, 실천하지 못한다면 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언자들이 이 물결이 쓰러질 것이다. 물이 다 쏠아지면 죽는다. 이렇게 예언하지만 그걸 안 쓰러지게 해놓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자는 소인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지원에서나 여기 본원에서나 멀고 가까운이 없이, 전세계의 모든 잠자고 있는 사람들을 깨우고 갇혀있는 사람들에게

물질·정신계 둘 아닌 도리 알아야 통신

마음공부하면 갇힌 영령 풀어줄 수 있어

간다면 통신이 되질 않아서 한마음이 될 수가 없으니까 공덕이 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내 몸 한 개체도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전부 따라 온다면 이게 공덕이 되고, 개개인으로 본다면 이건 공덕이 될 수가 없죠. 한 회사가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회사를 운영한다면 한 구성체지만 제각각 본다면 구성체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심히 그 마음을 굳혀서 일체가 다 한마음으로 구성돼서 일체 제분과 더불어 같이 이 지구의 모습을 지속되게 하는 도량이 있어야 된단 얘깁니다.

그건 왜냐하면은 운기라고 할까, 그런 따뜻한 공기(氣)가 압축을 시키기 때문에 우리 공기막은 터지게 돼 있습니다. 그 얘기는 안 해도 되지만, 여러분이 왜 그렇게 저 스님이 저러는지 그것쯤은 조금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아서 오늘 말하기로 했습니다. 그거 터지면 만년설이나,

뛰어다니면서 죽은 사람, 산 사람, 갇혀 있는 사람... 직접 나는 대화를 하면서 문을 다 띄우고, 수녀나 또는 신부 모두, 고문을 당하고 갇힌 그 장소들, 문을 다 띄워 놔줍니다.

우리가 이 말을 하기 이전에 한번 이런 말을 해봅시다. 조상들을 천도시키는 데 어떠한 관계로 스님께서는 우주땀 하나 해 놓고 합니까, 이러겠지요? 그것은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살면서 극난하게 살던 그 관습이 남아서, 죽어도 그 관습을 떼어 버릴 수가 없습니다. 인식을 그렇게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그 먹는 착, 살려고 하는 관습이 그냥 누더기처럼 붙어서 자식들한테나 친척한테나 접근해서 자기 갈 길을 가지 못하고 해매고 돌게 됩니다. 그러면 그게 유전이 돼서 또 지금 산 사람들에게, 자식들에게 해 끼칩니다.

"왜 그러면 스님은 그렇게 천도를 합니까? 남들은 위패를 써서 붙이고 하는

데..." 이러는 분도 있겠지요. 부처님 법에도 '백일만 앓을 자릴 해 놓고, 즉 말하자면 설법을 해서 설득을 해서 구원을 하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거, 그런데 백일이 됩니까? 그냥 위패를 붙여 놓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부처님 법으로서 어긋나기도 하지만 때로는 갇혀 있을 수도 있습니다. 허락을 받아야 나가고 이렇게 되니 그 영령들은 도무지 헤어날 수가 없는 것이, 산 사람으로 인해서 또 그 진퇴에 걸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것을 백일만 되든, 백일 안돼도 돌아가시면 바로 위패를 해 놔다가 딱 살라 버리고 다시금 위패를 해서 또 모셔 오고 합니다. 그 원인이 어딘가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을 깊이 하셔야 됩니다.

보살행도 권리 있어야

그래서 나는 때에 따라서 여러분 조상님들을 다, 가난한 사람은 사십구(四十九)일이 돼도 백일로 채워서 그냥 천가를 합니다. 그건 왜냐하면 이게 산 사람으로 치면 교육 기간이 있어요. 이렇게 모두 앓혀 놓고, 이렇게 서로 앓을 자리

에 앓혀 놓고, 들게끔 하고 보게끔 하는 겁니다. 영가님들어요. 그래서 때에 따라서 가난한 집의 부모들은 천차만별로 직책을 줘서 내보냅니다. 머리 깎고 스님만 되는 게 선지식이 아니거든요. 다시금 이쪽으로 태어나서 선지식이 되게끔 일컬어서 해 주면서 한편으로는 그 자손들을 위해서 보살의 심부름꾼으로, 심부름꾼이라고 해야죠. 직책을 갖게 해 놓고, 이렇게 함으로써 자손들이 그 대에, 그 차원의 종자는 점점 커지게 돼 있습니다. 보살행은 남을 조금이라도 해롭게 해서도 아니 되지는 이익하게 하지 않는다면 그건 도가 아니요, 그것은 심부름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주천지에서 인정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정을 해 주지 않는 바람에 그 권리를 주지 않죠. 보살의 행도 권리가 있어야만 행을 하는 거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모두 문을 열고 귀가 뜨이고 눈을 뜨게 하고, 어느 지역이든지 가서 하면 거기에 통신이 되고 그래서 그 영령들이 다 깨어나게 하고...

이번에 이런 일이 있었죠. 서독에 갔는데 말합니다. 난데없이 수녀 한 분이 들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한국전통민속·문화대학 설립에 즈음하여 (독지가나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미래에 젊은 인재를 양성하고 우리의 전통문화를 연구, 개발, 보존해서 세계의 문화속에 우리고유의 전통민속문화를 체계적으로 교육하여 보다 다양한 인재를 양성해 세계속에 우리 문화의 우수성을 알리고, 전통문화 창달에 기여하여 국가관, 민족관이 살아있는 한국전통 민속문화 대학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1. 사업내용

- 학교 전통민속, 문화대학 설립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

2. 교육학과

- 국악 및 전통악기, 민속한의학, 한문, 서예, 전통무예, 전통춤, 전통의복등 전통문화 관련내용

3. 예상 소요경비

- 300억원

4. 학교부지 (위치)

- 학교위치 선정은 국악의 발상지인 남원, 운봉, 구례, 곡성등으로 학교부지를 물색 중에 있으며 추후 독지가나 투자자 분들과 협의해 최종 학교부지를 선정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학교 설립에 뜻이 있으신 독지가 분이 나 학교설립에 투자 하실분을 모십니다」

◆가 청: 한국 전통민속·문화대학 및 전통서당(학당) 설립추진 준비위원회

◆설립추진준비위원장 : 이 학 수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30번지

TEL : 063)634-7283 H·P : 019)634-7283

FAX : 063)634-1237

※ 뜻있는 독지가의 후원을 기다립니다. ※

■농 협 513148-52-061376

■우체국 400077-02-010610

예금주 : 이 학 수